

#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 만들기 본격화

### 내년 업무계획 보고 마무리

### 청년 미래도시·경제도시 조성 등 역점시책 415건 발굴 추진

목포시가 청년이 돌아오는 목포 건설을 본격화한다.

목포시는 신규시책과 역점사업, 공약사항 등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회를 열고 2023년 시정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박홍률 목포시장 주재로 민선8기 시정방향을 구체화하는 신규시책 65건과 공약사업 150건, 역점 현안사업 200건 등 총 415건에 대한 보고와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졌다.

우선 청년인구 유입과 지역정착을 위한 시책으로 ▲목포 스마트그린산단 조성 ▲목포 공공임대형 스마트 지식산업센터 건립 ▲청년일자리종합센터 개설 ▲목포형 4차산업을 활용한 관광·수산

등 분야별 청년창업·사업 지원 공모 ▲대학생 직장체험 활동 확대 등을 구체화했다.

목포시는 목포삽진항 국가어항 지정과 목포사랑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생활안전보험 비용 지원, 산업단지 근로자 복합문화센터 설치, 유가인상에 따른 어업인 면세유 지원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전략산업 육성 시책으로 ▲중소형 선박 고속엔진의 스마트 수리산업 육성 ▲복합해양레저 관광도시 기본계획 수립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 기술 지원사업 ▲스마트 도시계획 마스터플랜 수립 ▲김산업 진흥구역 지정 및 특화단지 육성 ▲수산식품 원스톱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인재양성 교육도시 조성 계획도 구체화 했다. 시는 지속가능한 교육발전 5개년 계획 수립하고 구·신도시간 주거여건 변화에 따른 목포권

초·중·고 재배치와 진로진학 상담센터 구축, 목포 장학재단 장학사업 확대 등을 역점사업으로 결정했다.

이 밖에 목포해안선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삼학도 생태공원 및 해상보행교 조성, 북항 노을공원 명소화 등 체류형 국제해양관광도시 조성 시책과 가족친화형 복합문화공간 신설, 교통약자 바우처택시 운영 신중년 및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통해 시민 복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서 목포시는 민선 8기 1호 공약 추진사항으로 초·중·고교생 100원 버스 운영을 시행 중이다.

시는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2023년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반영해 내년도 시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연말까지 목포형 4차산업 발굴 보고회와 청년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자문단 회의 등을 개최해 '청년이 찾는 큰 목포' 건설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실행해 나갈 계획이다.

/목포=문병선 기자 서부취재본부장 moon@



## 대불산단 치안협의체 집행위 10월 정기회의

### 외국인 자율방범대 지원 등 논의

영암경찰이 지난 26일 영암 대불산단 지역의 안정적인 치안환경 조성을 위해 경찰과 기업,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22년 10월 대불산단 치안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대불산단 치안협의체는 영암경찰과 영암군, 대불경협 등 10여개 기관·단체·기업체 임원들이 참여해 대불산단의 활발한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축한 사회안전망 협의체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김종득 경찰서장, 우승희 영암군수, 고창희 대불경협회장이 참석해 대불산단 치안협의체 추진과제와 진행 상황을 브리핑하고 외국인 자율방범대 간식비 지원과 치안협

의체 운영예산 확보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 교통안전 추진과제인 출·퇴근 안전확보를 위한 자전거 도로 설치와 대불산단 공영주차장 확보, 임시주차장 설치, 생활안전 추진과제인 여성안심 귀갓길 확대, 외사추진 과제인 외국인 자율방범대 재정비 후 정기적 합동순찰 현황과 범죄예방 및 산업기술 유출방지를 위한 외국인 근로자 범죄예방 추진현황 등도 보고했다.

김종득 영암경찰서장은 "앞으로도 민·관·경의 협력을 더욱더 공고히해 지역사회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하는 등 치안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전봉현 기자 jbh@kwangju.co.kr

## 대한민국 농업대상 진도군 '대상' 수상



진도군이 대한민국 농업대상에서 최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됐다.

진도군은 지난 26일 진도군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열린 2022년 대한민국 농업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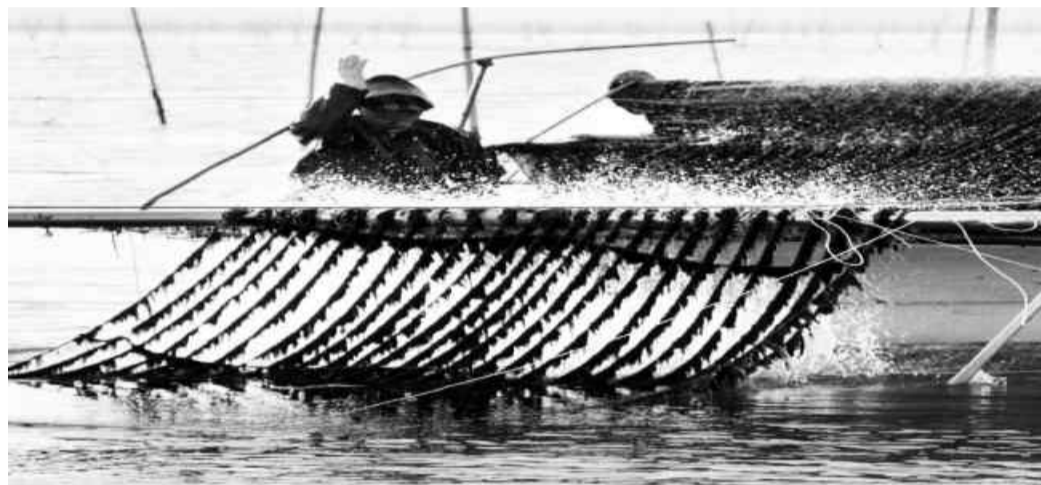
이날 시상식은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가 주최한 행사로 농업과 농촌의 발전, 농업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묵묵히 기여하는 각계각층 기관·자치단체의 업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해 시상한다.

진도군은 ▲농수산물 수출액 30% 이상 확대 달성 ▲기후변화대응 농·수산 행정 추진 강화 ▲농·수 특산물 브랜드화 추진 ▲농·수산물 조적화 등을 추진해 왔다.

또 ▲농·수산업 기본수당(소득) 지급 추진 ▲벼·보리 수매장려금 지급 ▲생명농업 기반 구축 ▲다목적 비닐하우스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약 실행을 위해 노력하는 등 지방 농정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이번 수상은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이다"며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농어촌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해상에서 물김을 채취중인 어민.

〈해남군 제공〉

## 해남군 내년산 김 생산 지원 박차

### 밀식 방지·적기 채묘 교육 등

### 153억원 투입 15개 지원사업

해남군이 지역을 대표하는 특산물인 물김 생산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올해 해남군의 김양식 규모는 9607ha, 19만 2140척으로 9월 중순부터 10월초까지 전체 양식물량에 대한 채묘가 마무리됐다.

해남군은 지난해 김 황백화 피해로 인해 6만 9893 t, 608억7900만원이 위판되며 전년 대비 생산량은 14%(1만1055 t), 생산 금액은 6%(37억 8600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남군은 김 양식 어민들을 대상으로 조기 교육을 실시하고 적정시설과 밀식 방지, 적기 채묘를 통한 고품질 김생산에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군은 적기 채묘와 함께 해황여건이 좋아 올해 생산량 증가를 기대하고 있으며 김양식 관련 15종

사업에 153억원을 투입해 고품질 김생산에 지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사업비 9억원을 투입해 총 3만척에 해당하는 육상채묘를 지원, 안정적 채묘를 지원할 계획이다. 육상에서 회전수차에 김망을 감아 채묘하는 방식인 육상채묘는 기존 해상채묘에 비해 바다 날씨의 영향이 적어 채묘율이 높고 병해충 피해가 적은 것이 장점이다.

또 역대 최대 규모인 110억원 사업비를 확보해 친환경부표 110만여개를 보급한다. 이는 지난해 32억원 사업비의 3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2024년까지 친환경 부표 보급률 100%를 달성할 계획이다.

앞서 김 양식 시기에 맞춰 보급되어야 하는 김 활성처리제를 어촌계별로 납품했으며, 김 양식기 자재와 로프, 어망, 우량종묘 공급사업과 김 채취기 등을 지원하는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사업도 지원하고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청년이여 비상하라!... '무안 YD 페스티벌'

### 28~30일 남악중앙공원 일대

제2회 무안 YD 페스티벌이 오는 28일 개막한다. 오는 30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는 남악중앙공원 일대에서 '용처럼 비상하라! 청년도시 무안!!'이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무안군은 전남도 17개 군 중 청년(19~45세)인구가 가장 많은 무안의 특성을 살려 청년층을 중심으로 무안이 함께 즐기는 지역사회 화합의 장을 마련했다.

개막일(28일)에는 청년단체와 군민, 전문공연자 등 500여명이 참여하는 개막퍼레이드를 시작으로 희망찬 무안을 표현하기 위한 LED 손터치 퍼포먼스와 자이언티, 사운드 힐즈, 김다현 등 인기 가수들이 출연하는 개막축하공연과 불꽃쇼가 펼쳐진다.

깜짝 이벤트로 드레스코드가 진행될 계획으로 이 밴드 참여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사장 종합안내소에 방문해 선물 교환용 팔찌를 받을 수 있으며, 선물교환은 오후 6시부터 밤 9시까지 쌀과 고구마, 담요 중 한 개를 선택해서 받아가면 된다. 29일은 청년들의 끼와 열정을 보여줄 수 있는

무안 스트릿댄스 경연대회와 초청가수로 오마이걸이 무대에 오르며 EDM파티도 마련됐다.

페막일에는 스트릿댄스 본선 10팀의 경연과 초청가수 루시, 빌리, 무안군홍보대사 농수로가 함께 하는 청춘가요제, 그밖에도 손미나 작가가 출연하는 명사초청강연 등이 진행된다.

아울러 청소년을 중심으로 세대간 공감 소통을 위해 청소년 정책제안대회, 최성에 박사가 강연하는 청소년 학부모 교육이 있고, 청소년의 심신단련을 위한 청소년 길거리 농구대회가 30일까지 열린다.

이번 축제기간에는 4차산업체험존과 전남 서남권 무안군 일자리박람회도 남악중앙공원과 김대중 광장 일원에서 펼쳐지며 노동간·세대간 소통공감을 위한 ▲청년농업인 참여행사 ▲청년소통간담회 ▲무안분청자기 전시체험 ▲우리쌀 무료 나눔 행사 등이 마련된다.

김산 무안군수는 "이번 행사가 청년도시 무안으로서의 발전가능성을 제시하고 청년을 통한 비전을 군민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무안 YD 페스티벌에서 새로운 콘텐츠와 다양한 즐길거리를 준비했으니 가을철 잊지 못할 추억을 담아가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열독률 1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

항매산 전망대 | 안성 죽산한미당 | 부여사비 창작지구

문의 전화 **1644-6430**

천안본사 및 공장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망향로 903-6(오목리9)

프론티어벤처 | KIBO | 01509001 | 휴먼이엔티주식회사